

이도 LeeDo 선언문

AI 시대의 ‘살아있는 언어’에 대하여

윤현우

2026.01.05

<이도 LeeDo 선언문>

인류의 언어가 제각기 다르고 파편화되어, 사람들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서로 온전히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수많은 이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품고도, 복잡한 코딩의 장벽과 까다로운 배포의 절차에 가로막혀 마침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나는 이 소통의 단절과 창의성의 억압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즉각적인 도구로 빛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공론장, '이도(LEEDO)'를 만듭니다.

이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언어를 쉽게 익혀, 매일매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앱(App)이라는 살아있는 형태로 제작하고 다운로드 없이 공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LeeDo, 이도 (이도: 이로울 利, 길 道) : 세상을 이로운 길로 이끄는 언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언어를 창작했음을 드러내고자 이도라고 이름지었습니다.

Global Slogan

Don't just say it, LeeDo it.

<제작 동기>

영상 미디어는 TV라는 거대 자본의 전유물에서 출발했지만, 유튜브의 등장으로 대중은 더 이상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코딩 또한 AI와 바이브 코딩의 확산으로 “전문가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 대중은 더 이상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만 하는 존재이기 어렵다.
- 사용자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앱으로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타인이 만든 앱을 즉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엇보다, 혁신은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 발생한다.

LeeDo는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처럼, 사용자가 간단한 아이디어로 만든 앱을 피드 형태로 올리고, 다른 사람이 즉시 실행해보며, 리믹스와 피드백으로 진화시키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재미와 용도는 플랫폼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의 실험과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될 것입니다.

1. 시대적 배경

현재 앱 생태계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중심의 유통 구조, 그리고 개발자라는 제한된 집단이 생산을 주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발전으로 제작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면, 기존 구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의 병목이 되어 더 이상 시대의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는 시대에는, 그 아이디어가 배포·체험·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LeeDo는 그 필연을 가장 먼저 구조화한 제안입니다.

2. LeeDo의 정의

AI 시대의 새로운 공론장(The New Public Sphere)이자 새로운 언어체계

LeeDo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저장소가 아닙니다. 이는 AI 기술을 매개로 탄생할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입니다.

3. 공론장의 본질적 가치 계승

LeeDo 하버마스가 정의한 공론장의 가치를 뉴사이어티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 **보편적 접근 (Universal Access):** 자본과 기술적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다.
- **지위의 평등 (Equality):** 거대 기업의 앱이나 개인의 앱이나, 뉴사이어티 안에서는 오직 '아이디어의 가치'와 '실용성'으로만 평가받는다. 제작자의 배경은 중요치 않다.
- **비판적 소통 (Rational Interaction):** 단순한 소비를 넘어, 리믹스와 피드백을 통해 서로의 결과물을 발전시키며 집단지성을 형성한다.

4. "설치 없는 공유, 창작의 일상화"

특정 스토어에 등록되고 다운로드를 통해서만 소비되던 기존 앱의 방식은 현대사회의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등장으로 개발의 영역은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관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으로 세상에 등장합니다.

5. LeeDo의 이상적 기능

-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 결과물은 다운로드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체험된다.
 - 이 구조 안에서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는 특정 집단에 독점되지 않는다.
 -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공유하며, 누구나 타인의 결과물을 즉시 경험할 수 있다.
 - 개인의 결과물은 타인에게 영감이 되고, 타인의 피드백은 다시 개인의 성장이 된다.
- 이러한 순환 속에서 이도는 고정된 제품의 집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창작 생태계 이자 대중들의 의사 표현 공간으로 작동하는 공론장이 됩니다.

6. LeeDo 정리

결국 이도는 "말과 글"로 소통하던 과거의 광장을 넘어, "기능과 도구"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AI 시대의 진화된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류는 각자의 생각을 앱이라는 살아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세상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7. 사회에 미칠 영향

언어의 물리적 진화와 지능의 결합

LeeDo는 단순한 플랫폼의 등장을 넘어, 인류 문명의 근간인 '언어 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입니다.

1) 언어 장벽의 완전한 붕괴: '설명'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과거의 인류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라는 불완전한 매개체에 의존해 왔습니다.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진화하며 그 장벽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해석'과 '번역'이라는 제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안에서 지식은 더 이상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스파게티 조리법을 3D 애니메이션 앱으로 구현해 줘"라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 지식을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으로 변환합니다. 이제 인류에게 언어는 '해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누리면 되는 환경'이 됩니다.

2) 언어의 물리적 실체화 (Physicalization of Language)

LeeDo 시대의 언어는 더 이상 공중에 흩어지는 음성이나 종이 위의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체감되는 물리적이고 능동적인 실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도는 그것을 작동하는 앱(도구)으로 빛어냅니다. 이로써 인류는 관념 속에만 존재하던 '생각'을 현실 세계의 '물리적 도구'로 즉시 치환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3) 지능과 언어의 융합: 새로운 인류 소통의 탄생

LeeDo는 '인간의 의도(언어)'와 'AI의 실행력(지능)'이 합쳐지는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의도가 담긴, 살아 움직이는 '지능형 도구'를 건넵니다. 이것은 인류가 도구를 처음 사용했던 '원시의 직관'과 AI의 '초지능'이 결합된, 전례 없는 새로운 차원의 소통 방식입니다.

8. 미래 전망

웨어러블 시대와 이도(LEEDO)의 필연성

[스마트폰의 종말과 '투명한 소통'의 시작]

우리는 머지않아 스마트폰의 시대가 가고, 안경(Smart Glasses)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인류의 주된 인터페이스가 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환경에서 이도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인류의 감각을 확장하는 운영체제(Sensory OS)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1) '다운로드 제로'의 완성: 실시간 증강 도구

웨어러블 환경에서는 앱을 검색하고 설치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소통의 흐름을 끊는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이도의 역할: 시선이 머무는 곳, 손짓이 닿는 공간에 필요한 앱이 즉시 나타나고 사라져야 합니다. '**다운로드 없는 실행**'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이도는 안경 너머의 세상을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가 될 것입니다.

2) '디지털 우가우가'의 실현: 신체 언어의 도구화

손짓(Gesture)과 눈동자(Eye-tracking)는 인류가 가진 가장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이도의 영향력: 이도 위에서 사용자의 몸짓은 곧 '바이브 코딩'의 명령어가 됩니다. 허공을 휘젓는 손짓 하나로 새로운 도구를 빛내고,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내 시야로 가져옵니다. 이는 인류가 도구를 처음 사용했던 원시적 직관과 초지능 AI가 결합하여,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3) 공간적 공론장: 세상 모든 곳이 소통의 캔버스

과거의 공론장은 사각형의 화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어러블 시대의 이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 공간 전체를 공론장으로 바꿉니다.

이도의 영향력: 거리의 벽면, 식탁 위, 혹은 대화하는 상대방 사이의 빈 공간에 이도로 만든 '살아있는 언어(앱)'들이 떠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하는 대신 상대방의 시야에 직접 작동하는 도구를 띄워주며,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경험의 동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9. 이도(LeeDo)에 담긴 개인적 철학.

복잡성의 단일화

이도(LeeDo)의 구조는 선형대수학의 '선형 독립(Linear Independence)'과 그 '동치 성질'들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복잡한 정리들이 결국 하나의 본질로 귀결되듯, 이도(LeeDo)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을 '살아있는 언어'라는 행렬(Matrix)을 통해 새롭게 생성하는 도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도(LeeDo)는 '윤현우'라는 기저(Basis)가 만드는 새로운 벡터 공간 (Vector Space)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인류의 모든 아이디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이도라는 결합을 통해 무한한 차원의 가능성을 생성(Span)해 낼 것입니다.

2026. 01. 05.

이도 (LeeDo) 선언.

이 선언문의 저자는 윤현우입니다.

하지만 AI를 능동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이 문서를 빚어냈습니다. 이는 이도 (LeeDo)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자, 이도 (LeeDo)가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조차 인간의 의지와 AI의 지능이 협업하여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이도 (LeeDo)는 관념을 넘어 실체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제작자 : 윤현우. Hyunwoo Yoon.

연락처 : 010-4071-9602

이메일 : wlsvna312@naver.com

Copyright © 2026 Hyunwoo Yoon. All rights reserved.

본 선언문의 저작권은 윤현우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금합니다.